

K-Pop과 실용음악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Cooperative Roles between K-Pop and Applied Music

류은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Eun-Joo Ryu(vocal_eunjoo@naver.com)

요약

신(新)한류의 재조명으로 K-Pop음악 산업의 흥행은 지속되는 한편, 대부분이 아이돌 댄스 음악이라는 획일적인 장르적 한계를 이유로 한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실용음악 교육의 체제의 변화를 통해 음악적 질의 향상을 이룩해야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실용음악 교육이 K-Pop음악 산업의 지속적 성공에 조력할 수 있는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K-Pop과 실용음악의 의미와 연관성을 파악하고, 두 영역의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2013년부터 3년간 국내공인가요차트인 가온차트에서 디지털종합순위의 100위내에 진입했던 곡에 참여한 인물들 즉, 가수, 작·편곡가, 작사가 및 연주자들을 K-Pop인재로 간주하여 조사하고, 그들 중 얼마만큼 실용음악 전공과 관련 있는지 파악한 결과, 41.74%로 확인되었다.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큰 공통적 분모 아래에서 지속적인 한류를 위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양한 K-Pop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니즈 증대와 이를 위한 국내외 사회적 분위기 형성, K-Pop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변화 등이 있다.

■ 중심어 : | K-Pop | 실용음악 | 대중음악 | 신(新)한류 |

Abstract

The success of K-Pop music industry continues as there is a new light shedding on the new Korean wave. There is a continuous discussion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idol's dance music because of its limit in the uniform genre. As a solu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K-pop music, researchers said to supplement it through the change of educational system in the applied music. However, research into how much the education of applied music is contributing to the continuous success of the K-Pop music industry and how each industry is affecting each other was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will understan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K-Pop and the applied music, and look into ways that can act as a mutual supplementation for both fields. Subjects of analysis included performing artists, composers, arrangers, lyricists, and singers for songs within the top 100 of the digital total ranking for the past three years in the Gaon chart which is the official music chart for Korea. Then, the study apprehended how many of those subject had relations with the applied music and their activity frequency. As a result, there were a considerable number of K-Pop performers, at 41.74%, who also majored in the applied music. To continue to tendency of Korean wave and develop the Korean popular music, this study will explore roles each industry should cooperate in the future. There were the formation of social atmosphere for increase of consumer's needs to diverse K-pop music and change of education for training its human resources that K-pop industry demand.

■ keyword : | K-Pop | Applied Music | Popular Music | New Korean Wave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대, 신(新)한류의 태동과 함께 K-Pop의 산업적 비중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세계화의 가능성을 두고, 각 영역별 연구가 이어져 왔다. 이수완(2016)은 K-Pop에는 K에 상응할만한 뚜렷한 한국 음악적 정체성이 부재하다고 생각한바, 2013년 싸이 열풍 이후 K-Pop이 다소 진정국면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비판적 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였다[1].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실용음악 교육체제의 변화를 통해 K-Pop의 성장의 균형이 잡혀야 하고, 세계화의 장기적 방안으로 실용음악교육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두 영역의 상호보완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4].

강력한 비주얼 콘텐츠와의 결합으로 K-Pop의 인기는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생산해내면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K-Pop음악의 히트곡들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인기의 요소들로서 반복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후크송을 꼽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청자들에게 지루함을 안기면서 한류의 장기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8][9], 이 때 실용음악 교육의 역할이 언급된 것이다. 특히, 조승현(2015)은 K-Pop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써 실용음악 교육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실용음악계에서는 인재를 직접 올바른 방법으로 양성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영재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K-Pop의 질적·양적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4].

하지만, K-Pop과 실용음악이 실제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용음악교육을 통해 K-Pop음악 산업에 진출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그러므로 K-Pop장기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실용음악교육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제안인지에 대한 의문점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는 앞으로 K-Pop산업에서 실용음악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조력하길 원하는 연구자들의 바람에서 시작된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용음악 교육이 K-Pop의 흐름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K-Pop음악의 질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실용음악(과) 출신자들의 활발한 음악 산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면서 두 영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경로를 소소하게나마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동조를 하였다.

이에 K-Pop과 실용음악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실용음악교육과 K-Pop의 상호 협업적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K-Pop이 지니는 음악적 특징의 한계를 벗어나는데 실용음악교육이 보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실용음악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K-Pop 음악 산업의 중심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고 나아가는 데에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연구의 방법

두 영역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의미론적 관점에서 실용음악과 K-Pop의 정의와 음악적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후, 두 영역이 공통되는 부분의 교집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실용음악이라는 교육적 영역과 K-Pop음악 산업, 이 두 가지 영역에 관련 있는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해, K-Pop히트곡의 가수과 곡 제작에 관련된 인물 즉,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연주자들 중 실용음악 전공을 했었거나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온차트(www.gaonchart.co.kr)의 디지털음원의 스트리밍·다운로드와 BGM 판매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집계한 연간 디지털 종합차트 1위부터 100위에 진입한 곡들을 수집한다. 가온차트는 국내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인된 차트(순위표)가 필요하다는 가요계와 음반업계 등의 의견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산업진흥중기계획(2009~2013)’의 하나로 추진하여 출범한 것으로, 집계부문은 모두 7가지이다[5].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작물 검색을

실시하여 수집하였고, 각 곡의 음원 녹음에 참여하였던 연주자, 즉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www.fkmp.kr) 홈페이지에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6][7]. 이들은 모두 현재 K-Pop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K-Pop인재라고 명명한다. 이들 K-Pop인재 중 실용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또는 실용음악교육계에 종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키백과, 네이버 인물검색, 바다위키, 각종 신문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하였고, 다시 실용음악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뮤지션들이 얼마만큼 K-Pop음악 산업에 기여를 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뮤지션 당 관여한 곡이 몇 곡인지 확인하였다. 가수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가온차트 K-Pop어워드에서 수상한 경력을 조사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영역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K-Pop음악이 실용음악으로 인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또한 K-Pop 음악 산업이 실용음악 교육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고찰한 후 서로 보완 및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K-Pop

1.1 K-Pop의 정의에 대한 선행연구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K-Pop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가요’ 또는 대중음악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이었다[8]. K-Pop이라는 단어가 정착된 것은 2011년 6월 프랑스 파리의 르 제니트 드 파리(Le Zenith de Paris)에서 열린 SM타운 콘서트의 매진으로 추가 공연을 요구하는 등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부터이다[10]. 2012년, 9월에는 JYJ의 김준수가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한 멕시코의 관심은 막대하였고, “오빠 멕시코스타일(Oppan Mexi Style)”이 유튜브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SNS(flashmobs, parodies 등)는 2013년에 멕시코에서 강남스타일과 관련된 약 102,000의 조회 수

를 달성하였다[31]. 이와 같이 2010년대에 들어 국내와 아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 지역까지 진출하는 K-Pop 스타들에 의해 한국 대중음악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중가요를 지칭하는 ‘Korean Popular Song’의 줄임말인 ‘K-Pop’이라는 단어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에도 물론 K-Pop 즉, 한국의 대중가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K-Pop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해외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해외에서 인식되는 K-Pop음악의 특징을 국내에서도 간파할 수는 없다.

K-Pop을 정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오한승(2012)은 K-Pop이라는 명칭이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중가요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널리 자리 잡고 있다며, 다시 말해 K-Pop의 실체는 ‘아이돌 댄스 음악’이 중심이 된 한국의 팝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고[11], 이수완(2016)은 특히 힙합, R&B, 록, 일렉트로닉 음악이 가미된 댄스음악을 말하며,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 화려한 비주얼과 안무, 가창력과 댄스, 해외 실력과 뮤지션들에 의한 친서구적 사운드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하였다[1][12].

양종모(2011)는 K-Pop은 시대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유행 음악이고, 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상업 음악이며, 음악의 형식적 가치보다는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 존재성을 인정받는 대중음악이라고 하였다. K-Pop은 한국인의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이 만들었지만 외국인이 소비하는 그런 음악인 것이라 하였다[13]. 신현준(2010) 역시, ‘한국의 음악 산업을 통해 생산되고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권역에서 소비되는 대중음악 및 그와 연관된 문화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국제적인 고유명사로 K-Pop을 설명하였다[14].

1.2 K-Pop의 음악적 특징

K-Pop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아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타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육성된 아이돌의 성장은 음악시장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데 일조했으며 한편으로는 대중음악시장의 중흥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내부동력으로 자리 잡았

다. 이들에 의해 연행되어지는 음악은 K-Pop 또는 아이돌 팝으로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작품들은 주로 '아이돌 음악'에 한정되며 그 외의 음악은 배제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K-Pop을 이해하고 있다[8].

K-Pop의 특징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이난수(2012)는 한 번에 소비자의 귀를 낚아채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적 메커니즘이 음악 기법을 변화시켰고, 따라서 짧고 매력적인 후렴구의 반복, 솔직하고 간결한 가사, 화려한 군무, 풍부한 사운드를 지닌 후크송을 인기의 요인으로 꼽았다[9]. 이러한 이유로 이호영(2015)은 인공성이나 상업성이란 개념이 K-Pop의 특성에 더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 이들과 창조하는 이들 역시 이런 비진정성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듯하다며 비판하였다[15].

하지만, 김기덕(2015)은 음악차트의 Top10에 진입한 아이돌 곡수는 전체 Top10곡 수 대비 평균 40% 미만을 보이고 있고, 아이돌 가수의 미디어에의 잦은 노출이 전체 음악시장의 음악장르에서 아이돌 가수의 곡의 인기로 이해되어 마치 전체 음악시장의 생태계 파괴 우려로 오해하는 착시현상으로 규정한다며, 아이돌 음악은 전형적인 댄스 음악뿐이 아니라 록, 발라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스타일을 구사하며 차트에서 성공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16].

하지만 이러한 연구자들의 우려 속에도 200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오며 K-Pop 열풍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되찾으며 긍정적인 영향 또한 미치고 있다[17].

2. 실용음악이란?

'실용음악'이라고 번역되는 외국어는 독일어의 Gebrauchsmusik에서 기원되었으며, 실용음악(Gebrauchsmusik)은 이렇게 서양음악사에서 1920년대 독일에서 생겨났다가 30년대에 나치정권의 박해로 주춤해진 하나의 음악적 사조로서 이해되고 있고, 음악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용음악(Angewandte Musik) 또는 기능음악(Funktionale Musik)도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18]. 사전에

서 정의하고 있는 실용음악은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6-1963)의 게브라우흐스무지크(Gebrauchs musik)를 일컫는 것으로서, 사회적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독일에서 말하는 순수음악과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18].

한스 보이트허(Hans Boettcher)는 실용음악을 "아마추어와 애호가를 위한 음악, 민중을 위한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음악"이라고 정의한다. 현대에서 실용음악의 의미는 단순히 아마추어를 위한 쉬운 음악이 아닌, 실용성을 가진 전문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음악 즉, 영상음악·컴퓨터음악·무대음악·기능음악 등 연주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술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의 총칭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19].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실용음악'이라는 용어는 1988년 3월부터 서울예술대학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악과 2부'가 개설되면서부터 대중음악교육을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대중음악의 또 다른 명칭으로 실용음악이라는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20]. 이는 영어의 'Applied Music'을 한국어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응용음악 대신 실용음악을 선택하면서 정착하게 되었고, 학과 이름으로 용어가 시작되어진 만큼 교육적 의미를 배제할 수는 없다.

김은섭(2006)은 실용음악은 대중음악과 같은 뜻으로, 서양예술음악(클래식, Western Art Music)과 한국 전통음악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음악을 포괄하며, 대학에서의 실용음악교육이란, 실용음악 전반에 관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1].

이정선(2010)은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는 교육목표에서 방송음악, 매체음악, 영화음악, 광고음악, 대중음악 등으로 정의 하고 있고,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의 교육목표에서는 '실용음악'을 '대중음악'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덧붙여, 대중음악계열학과 대부분의 명칭이 '실용음악과' 또는 '실용음악전공'으로 되어, '실용음악'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일반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많은 학교에서 '대중음악'을 교육하는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따라

서 ‘실용음악(Applied Music)’은 재즈를 포함한 ‘대중음악’전체와 ‘클래식음악’의 일부분까지 아우르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의하였다[22]. 또한, 실용음악에서 다루어지는 음악에는 대중가요, 팝, 재즈, 트로트, 방송, 광고 및 영상음악(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모바일 콘텐츠)과 무용·연극음악, 뮤지컬, 팝페라 등이 있다[23].

실용음악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현재 문화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증가하고, 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인재들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중음악을 포함하는 실용음악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다[24].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음악교육에서도 많은 실용음악 전공생들이 뮤지션 및 가수 연예지망생들이 현장의 실습 전문가·이론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고, 대중음악 산업 속에 실용음악교육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으나, 연예인 양성과 상품의 판매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중음악산업과 뮤지션을 육성하기 위한 대학의 실용음악 교육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3].

3. K-Pop과 실용음악의 교집합

종합해보면, K-Pop은 한국의 대중음악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2000년대 후반 아시아 권역 및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사용되어진 단어로써, 유행음악과 상업음악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음악적 특징으로는 일렉트로닉 음악이 가미된 댄스음악 등의 아이돌 댄스 음악이 대표적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실제로, 아이돌 음악이 차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크지 않으며, 발라드, 힙합, R&B, 록 등의 다양한 장르도 유행하는 등 댄스음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장혜원(2015)의 논문에 따르면 ‘실용음악’이 지칭하는 범위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다고 하지만[2], 종합해보면 실용음악은 교육계에서 대중음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과 명칭이 실용음악과가 아니어도 대중음악을 가르치는 학과에서는 실용음악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중음악이란, 한국대중가요는 물론, 방송음

악, 광고 및 영상음악(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모바일 콘텐츠)과 무대음악(무용·연극음악), 팝, 재즈, 트로트, 뮤지컬, 팝페라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따라 더 이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학과의 교육적 내용은 한 장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음악적 장르들을 교과과정에 담고 있는 상황이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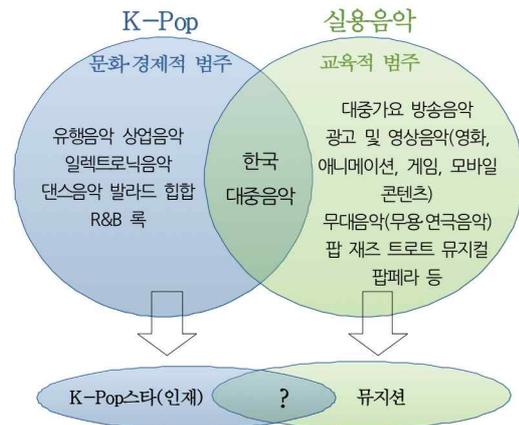


그림 1. K-Pop과 실용음악의 교집합

[그림 1]은 앞서 정의한 K-Pop과 실용음악의 교집합을 그려본 것이다. K-Pop에 속해 있는 언어들 정확히 K-Pop의 영역 아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각각 K-Pop을 지칭하는 말 또는 음악장르이고, 실용음악 역시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자 K-Pop과 실용음악은 그 자체로 대중음악을 뜻한다. 하지만 각 영역에서 의미하는 바가 뚜렷하므로 서로 대체될 수 없는 단어인데,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실용음악산업’이라거나 ‘K-Pop음악교육’이라고 바꿔 부르지 않으며, 최근에는 ‘K-Pop학과’가 별도로 신설되고 있다는 점은 K-Pop이 실용음악과는 다른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각 분야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실용음악계에서는 뮤지션, K-Pop음악계에서는 K-Pop스타로 서로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실용음악에서 배출한 뮤지션이 K-Pop음악 산업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들은 뮤지션이면서 K-pop인재로서 두 영역을 협업하도록 하는 매개체로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이들이 양쪽 영역에서 활동한 경

로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는 K-Pop을 통한 경제 창출이 상승되는 분위기 속에 실용음악 교육계에서도 더 많은 K-Pop스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체제를 마련하는 예로 기존 실용음악교육과는 차별화를 둔 K-Pop학과 및 전공이 개설되기도 하며, 산업협력을 맺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III. 2013-2015, K-Pop음악의 주역들

1. K-Pop 음악 산업 종사자 및 실용음악 전공여부

두 영역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각 용어의 정의와 성질을 살펴보았다. K-Pop은 다시 말해 간단히, 국내외에서 인기 있는 가요로 정의 할 수 있고, 이 논문에서 인기의 측정은 한국음악 공인차트인 가온차트에서 100위 안에 진입한 곡들로 한정하였다. 실용음악은 주로 학계에서만 쓰는 용어로서 실용음악을 한다는 것은, 실용음악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실용음악과가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였다는 것, 또는 확장해 그 학교에 강의를 한다는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서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K-Pop 음악계에 종사한 사람 중에 실용음악과에 관련 있는 사람을 분류해 보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림 2]는 최근 영향력 있는 K-Pop인재들을 조사한 결과로, 2013-2015년 가온차트의 디지털 종합차트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총 300여곡에 작업한 뮤지션의 숫자이다. 2013년에는 총 472명, 2014년에는 총 433명, 2015년에는 총 420명이 유행하는 K-Pop음악 산업에 종사하였다. 그 중에 전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들은 2013년에 293명, 2014년에 274명, 2015년에 276명이었다. 실용음악 전공 출신자 및 교·강사들로 확인된 수는 2013년에는 293명중 119명, 2014년에는 274명중 120명, 2015년은 276명 중 109명으로, 각 40.61%, 43.79%, 39.49%를 차례로 기록했다. 매년 K-Pop음악 산업에 종사한 인재 즉,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총 551명 중 230명으로 3년간 41.74%만큼의 실용음악과와 관련된 이들이 실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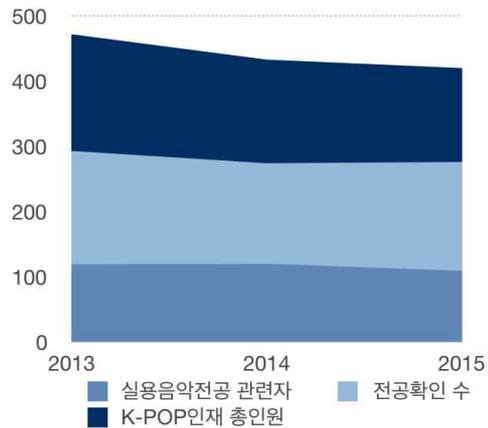


그림 2. 2013-2015년 K-Pop음악 산업 종사자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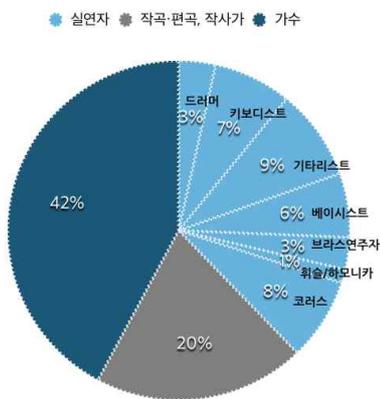
이를 다시 실연자, 작·편곡가 및 작사가, 가수로 분류를 하면 각 60.44%, 38.01%, 32.22%의 비율로 실용음악 전공 관련자가 기록된다. 작·편곡가 및 작사가와 가수의 수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데 반해, 실연자의 수는 평균보다 더 많으며, 최근 K-Pop인재 중 연주자의 과반수이상은 실용음악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주자의 경우, 이론과 실기의 다년간의 대학 교육과 연습을 통해 숙련된 실력을 쌓고 음악 산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수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이미 입학하기 전부터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용음악 전공과의 연관성이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곡 및 작곡가의 경우, 데뷔 연령은 가수만큼 낮지 않은데 반해 낮은 실용음악전공 비율이 기록된 이유로는 K-Pop 트렌드를 주도하는 음악 제작에 관련된 커리큘럼에 관한 실용음악교육 제공이 미흡한 것과 차트에 진입한 곡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SM기획사에서 제작된 음악들은 대부분 해외작곡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1. 2013-2015년 K-Pop인재의 실용음악 전공 여부

	실연자	작·편곡가, 작사가	가수
확인된 총 인원	129	121	301
비전공자	42	75	204
실용음악전공 관련자	87	46	97
	60.44%	38.01%	32.22%

아래 [표 2]은 실용음악전공 관련자로 확인된 230명만 다시 세분화해서 살펴 본 것으로, 기타리스트 20명, 코러스 보컬리스트 18명, 피아노/키보드리스트 17명, 베이시스트 14명, 드러머 8명, 브라스연주자 7명, 휘슬/하모니카 연주자 3명으로 실연자는 총 87명, 가수 98명, 작·편곡가 43명, 작사가 3명으로 분류되었다. 이 때, 가수이면서 작곡가로도 활동하였던 사람들 중에 가수로서의 활동곡이 더 많으면 가수, 작곡가로서의 활동곡이 더 많으면 작곡가로 분류하였다.

표 2. 2013-2015년 파트별 실용음악전공 관련자



조사 결과, 가수가 42%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실연자는 각 악기 연주자를 합해 총 39%이며, 작·편곡가 및 작사가는 20%로 제일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2. 실용음악과의 K-Pop인재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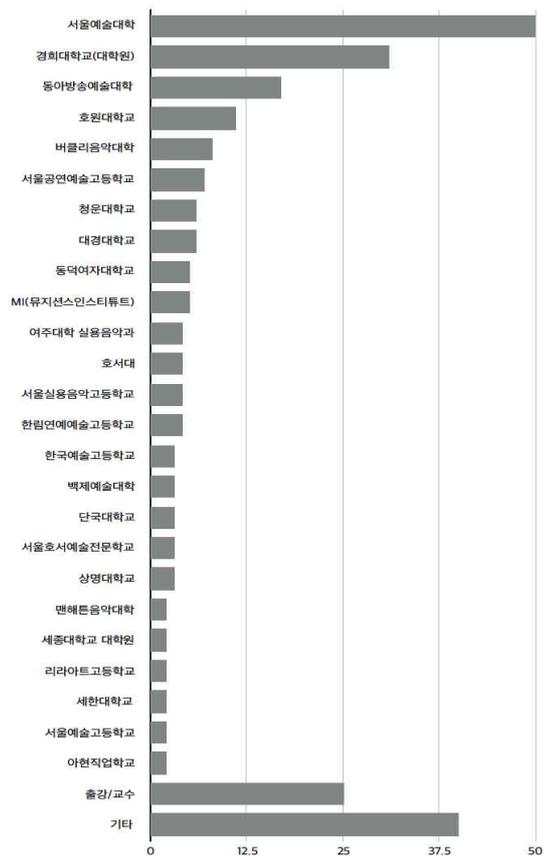
하상욱(2014)은 개설연도가 가장 오래된 서울예술대학이 매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실용음악교육의 선두주자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 얻어진 우수한 교육과정과 강사진,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과 뮤지션을 많이 배출한 덕분에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고 하며, 동아방송예술대학, 동덕여자대학, 호원대학교 및 경희대학교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로 언급하였다[25]. 2015년에는 한양대 에리카(안산)캠퍼스 재능우수자전형 실용음악학과(보컬)가 5명 모집에 무려 2181명이 몰려 436.2대 1을 기록, 전년도에 이어 전국 최고 경쟁률

학과의 됐다. 또한, 서경대 실용음악과와 단국대 생활음악과도 보컬파트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수시 경쟁률의 'Top10'에 실용음악과가 상당수 차지했음을 보도하였다[32].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K-Pop의 인기상승에 힘입어 최근에 개설된 학교의 실용음악과도 높은 입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실용음악학교이지만, 실용음악교육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의 버클리음악대학(Berklee College of Music)의 교육과정[21] 및 MI(뮤지션스 인스티튜트)도 실용음악 교육에 포함시켰다.

총 230명 중 어떤 학교에서 전공을 했는지 살펴본 결과, 서울예술대학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학교 31명, 동아방송예술대학 17명, 호원대학교 11명 순으로 이어졌다.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활동경력이 많아 출강을 하는 사람들도 K-Pop과 실용음악이 상생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여겨 인원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25명이었다.

표 3. 학교별 K-Pop인재 배출 인원수



상대적으로 개설연도가 오래되고, 동시에 입시경쟁률이 높은 학교일수록 K-Pop인재를 배출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 대학에 가기에는 어리거나,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은 주로 리리아트고등학교, 아현직업학교, 서울호서예술전문학교 등의 예술고등학교의 실용음악과에서 전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 4]는 이들 중, 차트 음원 성적으로 본 3년간 K-Pop산업에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을 참여했던 곡의 수로 랭크한 표이다. 1위는 28곡을 100위안에 진입시켰던 기타리스트 정수완, 23곡의 코러스 김현아, 22곡의 기타리스트 서원진 순이었으며, 각각 동아방송예술대학, 단국대학교, 서울예술대학을 졸업하였다. 10위권 안에 한 명의 작곡가와 한 명의 가수만이 진입하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실연자로서, 이는 K-Pop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뮤지션으로는 가수의 인원이 제일 많은 데에 비해, 한 가수가 기여하는 곡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가수 중에는 G-Dragon이 가장 많은 곡에 참여했으며,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편곡 등 한 곡당 그 음악에 관여한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실용음악 관련자 Top10

순위	곡수	파트	이름	학교
1	28	기타리스트	정수완	동아방송예술대학 졸업, 실용음악과 교수
2	23	코러스 보컬리스트	김현아	단국대학교 대중문화대학원 대중음악 석사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겸임교수)
3	22	기타리스트	서원진	서울예술대학
4	21	작곡가	이단열차기 쉐슬러	버클리음악대학
5	19	기타리스트	홍준호	서울신학대/서경대 실용음악과 교수
6	18	베이스스트	이태윤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방송음악 석사/ 평택대학교 교수
7	16	코러스 보컬리스트	소울맨	국제예술대학 실용음악(외래교수)
8	14	드러머	신석철	서울예술전문대학 실용음악학과
9	13	드러머	강수호	MI(뮤지션스인스티튜트) 학사, 배재대 실용음악과 초빙교수
10	12	가수	G-Dragon (빅뱅)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3. 실용음악과 출신 K-POP스타

실용음악교육을 이수한 K-Pop스타들의 K-Pop음악 산업에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곡의 수로 확인하는 대신, ‘가온차트 K-Pop어워드’를 살펴보았다. 가온차트 K-Pop어워드는 한국 음악시장 매출의 98% 이상 데이터를 집계, 발표하는 공인음악차트 ‘가온차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상식으로, 뮤지션뿐 아니라 음악 산업 종사자(음반 제작사, 음반 유통사,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실연자, 작곡자, 안무가, 평론가 등) 모두가 참여하는 음악 산업 전체를 위한 시상식이다[26].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상하여 그 영향력을 입증한 실용음악과 관련 K-Pop스타들로는 빅뱅의 G-Dragon과 대성, 나얼, 지코, 싸이, 엑소의 카이, 세훈, 시우민, AOA의 유경, 혁오의 임동건, 임현제, 이인우, 백아연, 레드벨벳의 예리, 2NE1의 박봄, god의 윤계상, 김태우, 레이나, 김동률, 마마무의 문별, 위너의 강승윤, 남태현, EXID의 솔지, 헤린, 드러머 장혁, 다비치의 강민경, 포미닛의 전지윤, 씨스타의 소유, 서인국, 크레용팝의 웨이, 에이핑크 윤보미, 김남주, 오하영, 손나은이었다. 가수 이 외에 베이스스트 이태윤 작곡가 이단열차기의 쉐슬러, 피아니스트 길은경, 코러스 소울맨, 드러머 강수호 등도 가온차트 K-Pop어워드 수상자이자 실용음악교육을 받거나 실용음악 교육계에 종사한 인물로 드러났다.

특히, 그룹 엑소 멤버 중에 실용음악 교육을 받은 자로는 카이, 세훈, 시우민으로 엑소가 디지털 음원차트에서는 오직 5곡만을 진입시킨 데에 반해, 국내외 앨범 수익 면에서 최고로 기록하여 2013년부터 3년간 꾸준히 앨범상을 받았으며, 총 6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음원차트의 성적에 비해 높은 앨범 판매율 및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인터넷 음악시장과 모바일 음악 시장으로 구성된 온라인을 통한 음원 위주의 소비 현상이 보편화된 현대의 유통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9]. 이 때, 온라인 음악시장이란 이른바 ‘다운로딩’과 ‘스트리밍’을 통해 mp3 등의 디지털 파일로 음악을 판매·구매하는 시장이다[14].

최근에는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도

많아졌는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K-Pop뮤 지션 중에는 오직 가수들만이 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작곡이나 연주와 같은 분야의 활동시기가 대학 입학이나 졸업 후인데 반해 가수들, 특히 아이돌 가수의 활동 시기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국의 아이돌 음악은 콘텐츠 수출 및 한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16].

표 5. 2013-2015 가온차트 K-Pop어워드 수상자

가수	실용음악학교	수상	곡목
소유 (sistar)	한국예술고등학교	2015 올해의 가수상 (음원) 9월	착해빠졌어 - 소유 & 맷드클라운
		2014 통린음원상	썸 - 소유 & 정기고
		2014 올해의 가수상 (음원) 2월	썸 - 소유 & 정기고
		2013 올해의 가수상 (음원) 6월	Give it to me - 씨스타
빅뱅	G-Dragon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2015 올해의 가수상 (음원) 5월	Loser - 빅뱅
		2015 올해의 가수상 (음원) 6월	뱅뱅뱅 - 빅뱅
		2015 올해의 가수상 (음원) 7월	If You - 빅뱅
	대성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2015 올해의 가수상 (음원) 8월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2015 아시아 최고영향력 그룹상	
나얼	나사렛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2015 올해의 가수상 (음원) 2월	같은 시간 속의 너
		2015 통린음원상	같은 시간 속의 너
지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2015 올해의 가수상 (음원) 11월	Boys and girls (Feat. Babylon)
	경희대학교 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학 석사	2014 올해의 발견상 핫트렌드 부문 - 블락비	
엑소	카이 서울예술고등학교	2015올해의 가수상 (앨범) 1분기	Exodus (Korean Ver.)
		2015올해의 가수상 (앨범) 2분기	Love me right (Korean Ver.)
		2015올해의 가수상 (앨범) 4분기	Sing For You (Korean Ver.)
	세훈 서울예술고등학교	2014 올해의 가수상 (앨범)	중독 (Overdose) - EXO-K
		시우민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실용음악과	2014 팬투표 인기상 - EXO
	2013 올해의 가수상 (앨범) 3분기		XOXO리패키지

		2013 올해의 가수상(앨범) 4분기	12월의 기적
AOA	유경 예원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2015 올해의 월드루키상	
		2014 핫퍼포먼스상	
		2013 팬투표 인기상	
혁오	임동건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임현제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2015 올해의 발견상 인디부문 - 혁오	
백아연	이인우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2015 특별상 핫트렌드 부문	
레드벨벳	에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2015 핫퍼포먼스상	
2NE1	박봄 버클리음대	2014 올해의 가수상 (음원) 3월	Come back To me
		2013 월드한류스타상	
god	윤계상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김태우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2014 올해의 가수상 (음원) 5월	미운오리새끼
레이나	한국예술고등학교		
		2014 올해의 가수상 (음원) 7월	한여름밤의 꿈 - San E & 레이나
김동률	버클리음대 작곡과		
		2014 올해의 가수상 (음원) 10월	그게나야
마미무	문별 백제예술대학교 미디어음악과 재학		
		2014 올해의 신인상	
위너	강승윤 부산예술고 음악과		
	남태현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2014 올해의 신인상	
EXID	솔지 동아방송예술대학 영상음악학과		
	헤린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2014 올해의 발견상 핫트렌드 부문	
다비치	강민경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2013 올해의 가수상 (음원) 3월	거북이
포미닛	전지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2013 올해의 가수상 (음원) 5월	이름이 뭐예요?
서인국	대불대학교 실용음악과		
		2013 올해의 가수상 (음원) 12월	이별남녀 - 서인국 & 지아
크레용팝	웨이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2013 올해의 발견상 핫트렌드 부문	
에이핑크	윤보미 한국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김남주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오하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손나은 서울예술고등학교		
		2013 핫퍼포먼스상	

[표 5]는 2013년부터 3년간 가온차트 K-Pop어워드에서 수상한 가수 중 실용음악을 전공했던 자들로, 시상 내역과 곡목을 정리한 표이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도 실용음악전공자가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밴드와 발라드가수 등도 포함되었다.

IV. 한국 대중음악을 위한 산업과 교육적 영역의 상호보완 역할

1. 선순환 구조와 사례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K-Pop과 실용음악 간에는 대중음악이라는 큰 공통적 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K-Pop은 산업적 영역에서, 실용음악은 교육적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로써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한류와 한국의 대중음악 발전을 위해서 실행되어야 할 음악 산업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 확인하였듯이, 현재 K-Pop음악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인재들 중 24.15% 만큼의 가수 및 뮤지션이 실용음악을 전공했거나 출강을 한다. 이들이 모두 실용음악을 전공한 후에 K-Pop음악 산업에 진출하였는지는 파악이 어렵지만, 전공 후에 K-Pop음악계에 진출하였다면 교육계에서 원하는 인재 배출을 실현했다는 의미이며, 이미 K-Pop인재가 되었지만, 실용음악을 교육받기 위해 진학했다고 해도, 그 교육의 필요성을 고취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실용음악 전공 출신 K-Pop인재의 수가 더 많아진다면, 앞으로 K-Pop 뮤지션을 꿈꾸는 차세대들에게 대중음악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리라 여겨진다.

한편, 실용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실무경험을 토대로 출강을 하게 된 인재들도 25명으로 0.1% 존재하였는데, 이는 실무경력이 많은 이들을 대학으로 초빙함으로써 실전교육을 통한 K-Pop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용음악교육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모두 한국 대중음악의 교육을 담당하는 실용음악 영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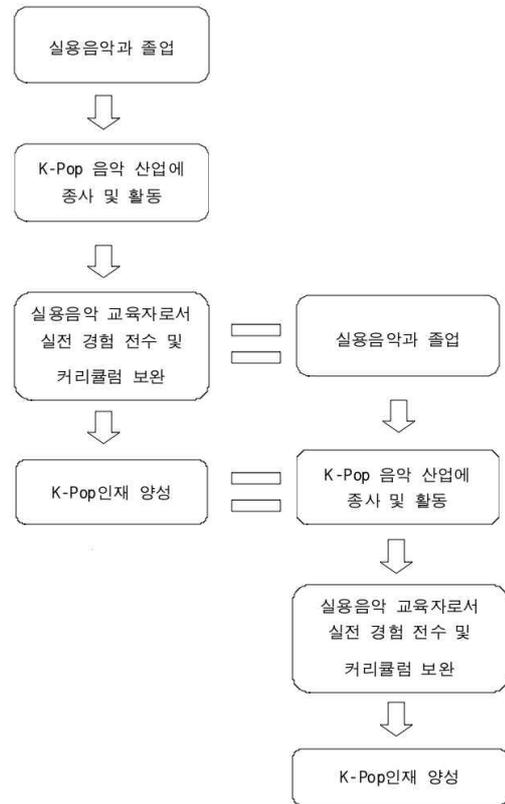


그림 3. 선순환 구조 모델

다시 말해 실용음악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K-Pop음악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이 학교에 채용이 되어, 자신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실전에서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기존의 교육체계를 보완하는 것이고, 이 후 보완된 교육과정을 받은 자들이 다시 K-Pop인재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K-Pop인재가 된다는 것은 방송음악, 재즈, 록, 팝페라, 영상음악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경험하고 화성학 등의 이론적 수학을 한 실력을 갖춘 뮤지션들이 대중음악에서 활약한다는 것이고, 이는 연예기획사에서 확일적으로 상품화 시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 및 상업성만을 중시한 댄스음악으로 편중된 K-Pop에 지루해 하는 국내외 청중들에게 음악성을 갖춘 다양한 음악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K-Pop산업적 측면에서 우려하는 장기적인 한류의 지속력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실용음악교육이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창력을 뽐내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데뷔한 가수들 중에 실용음악과 출신이 많은데,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데뷔 후에도 K-Pop음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백아연은 호원대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SBS의 <K팝스타> 시즌 1을 통해 데뷔를 하였으며, 2016년 제5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핫트렌드상을 수상하였다. 대표곡은 2016년 6월 월간 가온차트의 3위에 진입하였던 '쏘쏘'와 2015년 연간차트 6위에 랭크한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등이 있다. 이밖에 실용음악과 출신으로 서인국, 김필, 곽진언, 손승연 등도 오디션프로그램을 통해 발탁되어 가수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아이들에 편중된 K-Pop 음악 분위기를 전환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실용음악과 출신 가수 중 린, 거미, 김연우, 김범수, 포맨 등의 실력과들도 해외 수출되고 있는 K-Drama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해를 품은 달>, <구가의 서> 등의 OST나 <나는 가수다>와 같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 국한되지 않고 중국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한국국제예술원의 실용음악과 전임교수에 채용되었던 가수 더윈은 중국의 후난 위성 TV <나는 가수다> 시즌3에서 한국인 최초로 가왕전 3위에 오르면서 아이돌 댄스가 아닌 K-Pop도 인기를 얻고 한류에 조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렸다. 이어 2016년 4월 15일, '나는 가수다 시즌4'의 특별전에서는 작곡가의 경합도 함께 치러졌는데, 중국 가수 장신지의 편곡에는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인 김형석, 더윈의 무대에는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과 졸업의 김형규 작곡가가 활약을 하였다[33].

이와 같이 실용음악 전공과 관련된 뮤지션들이 국내 외에서 인기가 있는 오디션프로그램, 음악 경연프로그램, 드라마 등을 통한 활약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용음악 전공 관련 뮤지션들이 최근 들어 K-Pop 음악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단편적인 사례이며, 실용음악이 음악적 다양성 확보 기여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

재양성과 구체적인 교육적 체계 및 산업진출로의 경로 마련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2. 발전방안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2011 파워 셀레브리티 40'의 상위 랭킹은 K-Pop 가수들로 채워짐[27]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에 한국 문화 산업 교류 재단의 '한류 인식 조사 국내 기업'에 의하면 K-Pop의 수명이 2-4년 안팎일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고 K-Pop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걸 증명했다. 그 이유로 음악의 질보다는 너무 많은 아이돌 음악의 등장과 더불어 엇비슷한 음악들이 난무하고 있는데다가 상품성과 비즈니스만을 앞세워 K-Pop이 식상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경쟁력이 이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여겨진다[17].

하지만 아직까지는 식상하다는 아이돌 댄스음악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기에 K-Pop이 높은 음악의 질과 음악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실력을 겸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새로운 한류 트렌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국내외로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콘텐츠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음악경연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하였다. <나는 가수다>를 거점으로 유행이 시작된 경연프로그램에는 현재 <불후의 명곡>, <판타스틱 듀오>, <듀엣가요제>, <신의 목소리>, <노래의 탄생> 등이 있으며, 여기에는 가수의 가창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가수가 경연하는 곡을 위해 관중을 압도하는 창의적인 편곡 실력이 필요하다. 경연 무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들의 완벽한 연주의 조력 역시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뮤지션들의 중심에는 실용음악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있으며, 실력을 겸비한 전공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업진출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실력을 닦는 음악 경연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국내의 인기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는 즉, 음악성을 갖춘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했다는 의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 있는 뮤지션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실용음악 교육계에서는 창

의적이면서도 실력을 겸비한 뮤지션 양성에 대한 역할을 잘 수행해 낸다면 상호 협업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K-Pop음악 산업에서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실용음악교육으로는 첫째, 재즈 아니면 유행가 등의 장르에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장르와 음악적 스펙트럼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둘째, 노래와 춤뿐 아니라 연기, 외국어 등을 맨투맨으로 집중 교육하며 인성교육 및 심리상담도 함께 시행하는 K-Pop성공요인 중 하나인[28] 엔터테인먼트사의 트레이닝시스템의 일부 도입, 셋째, K-Pop스타 양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주자와 작곡가들이 실용음악 교육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 K-Pop음악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음악제작을 위한 커리큘럼 제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덧붙여, 방송관련학과와의 협력으로 실제 경연프로그램 등의 방송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한 수업 제공을 한다면,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11년 당시, 국내에 실용음악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학교는 12개로[29] 실용음악과가 있는 예술고등학교는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4]. K-Pop은 우리의 삶, 학생들이 삶 주변에 있는 음악이기에, 그 음악이 우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의미 있는 파문을 일으키기에 음악교육의 수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13]. K-Pop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만 실용음악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및 중학교 까지 실시하여 재능 있는 자들이 대중음악의 교육적 접근을 쉽게 하고, 국가적으로 대중음악 교육 즉, 실용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 국민적으로 늘려 준다면, 장기적으로 질적·양적 K-Pop인재들을 확보 및 배출하는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Pop의 해외진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엔터테인먼트사와 K-Pop스타들과는 달리, 음원 종량제와 허술한 저작권관리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작사·작곡·실연자)에게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다[28]. 본 논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K-Pop음악을 이끌고 나가는 주역은 가수들이나 제작

자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와 연주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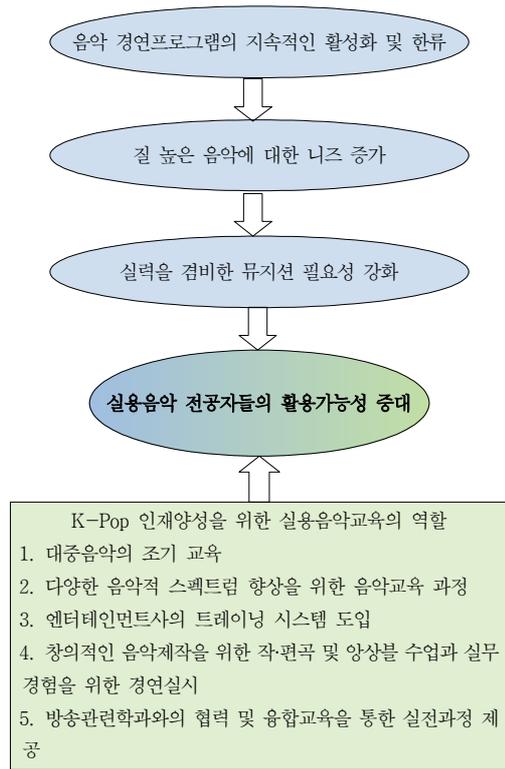


그림 4. 다양한 K-Pop음악 발전을 위한 방안1

V. 결론

최근 도드라지는 융합 발전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취해야할 태도 중 하나는 문화·비즈니스 콘텐츠와 교육콘텐츠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문헌연구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보강함으로써 획일화 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 및 K-Pop인재를 배출해 낸다면, K-Pop음악의 지속적 한류에 대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유효한 제안인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실제로 두 영역이 의미하는 바와 상호 연관성을 정의하고, 나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큰 공통분모 아래에서 K-Pop은 문화·경제 영역을 담당하며, 실용음악은 교육적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로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용음악 전공 관련자이면서 K-Pop음악 산업 종사자인 인물들의 수를 알아보았는데, 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K-Pop음악 산업에 종사한 자로는 952명이며, 전공 관련 여부 확인이 가능했던 자들은 551명, 그 중에 과반수에 가까운 230명이 실용음악과 출신 및 출강을 하는 인재들이었다. 아이돌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포함하면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K-Pop음악 종사자 중 작곡, 작사가 보다는 실연자 및 가수들이 실용음악을 전공한 확률이 높았다. 특히 실연자의 경우 확인된 정보 안에서의 비율을 보면 67.44%로 과반수 이상이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는 실제로 실용음악을 전공한다는 것은 K-Pop음악 연주자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며, 반대로 K-Pop음악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은 실용음악 학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실용음악과를 통해 실력을 겸비한 가수들과 작곡가들도 오디션프로그램과 음악 경연프로그램을 통해 음원차트의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외진출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돌 댄스음악만이 K-Pop의 한류를 위한 음악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K-Pop과 실용음악교육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한국대중음악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할 상호 협업적 역할도 고찰해 보았다.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실용음악을 전공한 K-Pop 인제가 성공할 확률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실력 있는 뮤지션 양성을 견인할 수 있는 경연프로그램 활성화 등과 같은 새로운 한류 문화 형성을 제시하였다. 실력 있는 K-Pop스타들이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학생들이 대중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교육적 영역의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반대로 실용음악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앞으로 K-Pop음악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교육적 콘텐츠와 산업적 콘

텐츠의 융합적 발전이 함께 실현되는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K-Pop음악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실용음악 커리큘럼이 보완되어야 하고, 이를 본문에서 제시하였다.

실용음악 전공자들이 실제로 K-Pop산업에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장기적 한류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음악을 만든다는 근거는 없지만, ‘좋은’ 음악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제도를 보완하고 산업으로의 적극적인 인재건인이 전제된다면, 한국 대중음악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방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교육적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용음악전공자가 K-Pop산업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또한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참 고 문 헌

- [1] 이수완, “케이팝(K-Pop), Korean과 Pop Music의 기묘한 만남: K-Pop의 한국 대중음악적 진정성에 대한 탐구,” 인문논총, 제73권, 제호, pp.77-103, 2016.
- [2] 장혜원, *국내 대중음악의 문화적 정당화 과정에 대한 연구: ‘실용음악’의 대학제도 진입과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3] 이선호, “K-Pop 주류(Mainstream)에 의한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변화에 따른 실용음악교육 개선에 대한 소고,” 문화예술교육연구, 제10권, 제6호, pp.109-127, 2015.
- [4] 조승현, “K-POP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의 도출: 교육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4418-4423, 2015.
- [5] <http://www.doopedia.co.kr/>
- [6] <http://www.komca.or.kr/>
- [7] <http://www.fkmp.kr/>
- [8] 서정환, *케이팝에서 후의 사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9] 이난수, “K-Pop의 감흥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

- 교 인문사회연구, 제43호, pp.559-594, 2012.
- [10] 이현진, *K-pop의 성장 지속화 방안: 가수 사이 (PSY)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11] 오한승, “전문대학의 K-Pop 전공 개설 및 교과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 발표논문집, pp.91-93, 2012.
- [12]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실,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2014.
- [13] 양종모, “케이 팝(K-pop)의 학교 음악교육에 수용 탐색을 위한 음악적 특성 분석,” 음악응용연구, 통권 제4호, 2011.
- [14] 신현준, *2000년대의 10년, 대중음악의 변화를 뒤늦게 회고하면서*,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10.
- [15] 이호영 외, *디지털 한류와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2012.
- [16] 김기덕, “신한류 아이돌 음악과 한국대중음악시장의 생태계 균형에 관한 연구 2000-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157-167, 2015.
- [17] 최현준, *K-Pop 열풍에 따른 한국 대중음악 발전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18] 홍민아,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19] 한승희, *국내 실용음악학과 커리큘럼 분석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20] 이정선, *실용음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의 모색: 전문대학 실용음악과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21] 김은섭, “버클리음악대학의 교육체계 연구,” 음악과 민족, 제31호, pp.255-288, 2006.
- [22] 이정선, “대학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학과 개설 형태,” 음악교육연구, 제38권, pp.119-148, 2010.
- [23] 이예스더, “예술치료에서의 실용음악 활용 가능성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제5권, 제2호, pp.59-76, 2010.
- [24] 최성수, *대학 실용음악 보컬교육이 학습효과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 [25] 하상욱, *실용음악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 국내 유명 실용음악과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영상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26] <http://www.gaonchart.co.kr>
- [27] 박장순, “신(新)한류시대의 메인스트림 K-Pop의 확산에 관한 연구: K-pop의 밈이론적 해석과 한류사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6권, 제4호, pp.1-24, 2012.
- [28] 주호일, *신한류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K-POP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29] 박준영, *실용음악(Applied music)교육의 실태분석과 제언: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30] 정지영, “교육적 콘텐츠로서의 한국 대중가요의 활용과 필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4호, pp.174-185, 2012.
- [31] Seong Cheol Choi, Xanat Vargas, Meza, and Han Woo Park, “South Korean Culture Goes Latin America: Social network analysis of Kpop Tweets in Mexico,”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Vol.10, No.1, 2014.
- [3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17190g/>

저 자 소 개

류 은 주(Eun-Joo Ryu)

정희원



- 2014년 2월 :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퍼포밍아트학과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포스트모던음악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실용음악, K-Pop, 대중음악, Bollywood Music